2021년까지 대중교통에 1조7500억 투입

도시철도 2호선·2층 버스 도입·금남로 전용지구 조성 등
광주시 3차 대중교통기본계획…내달 9일까지 의견 수렴

광주시가 오는 2021년까지 모두 1조7500여억원을 투입하는 제3차 광주시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민들의 의견을 오는 12월 9일까지 수렴한다. 도시철도 2호선 구축 예산이 1조1161억1000만원이 포함되면서 예산 규모가 커졌다.

27일 계획안에 따르면 2021년까지 대중교통 수단분담률 제고 및 이용편의 증대에 1조7159억4000만원, 대중교통 운영 효율화에 499억5000만원, 대중교통 안전성 향상 6억7000만원,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에 73억3000만원 등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도시철도 2호선 구축, 철도 네트워크 확대, 2층 버스 등 도입, 도심 환승거점 조성, 대중교통 전용지구 조성 검토, 신교통수단 검토, 친환경버스(전기버스, 수소버스) 도입, 대중교통 정기권(Pass) 도입 등이 있다.

여기에 버스 노선체계 효율화, 시내버스 장착 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버스정보안내단말기(BIT)확대, 자율협력 지능형교통체계(C-ITS) 구축, 요금정책 개선, 대중교통 재정 확보 방안, 교통안전 부실 운수업체 제재 강화 등도 포함됐다.

광주시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017년 기준 64만9293대로, 연평균 3.4% 증가하고 있으며, 차종별로는 승용차가 전체의 82.29%를 차지했다. 세대당 차량등록대수는 1.1대로, 광산구가 1.22대였다.

인구밀집지역인 신도심보다 원도심 중심의 주요 간선도로에 시내버스 배차가 집중되면서 승용차가 증가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2016년 37.1%에 불과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을 2% 상향시키고 편의성을 높여 감소하고 있는 시내버스 이용객도 증가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기로 했다.

경전철이나 BRT 맞춤형 버스 등을 환승센터 중심으로 연계시키고 고속화·광역화 고속철도, 광역급행철도, 광역급행버스 등도 운영하기로 했다.

2층버스 4대, 전기저상버스 95대도 도입하고, 버스전용차로를 기존 47.2km에서 57km로 연장한다. 오는 2027년까지 8770억원을 투입해 21km의 광주~나주 광역철도(광주효천역~남평읍~혁신도시~나주역), 5225억원을 들여 12.4km의 광주~화순 광역철도 건설(광주소태역~너릿재터널~화순군내~화순전대병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남로를 대중교통 전용지구로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도심 내 교통 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교통수요관리 정책과 병행해 자가용 이용을 보다 강력히 억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중교통 전용지구에는 지정된 가로 구간에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만 통행 허용하고 자가용 및 트럭 등의 통행을 금지하는 강제적 수요조절 정책 중 하나다.

금남로에는 업무용 건축물 22개동(주차면 672면), 진출입구 7개소, 지하상가 등이 자리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따뜻한 겨울 나세요" 광주시 동구 계림2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취약계층, 독거노인 등 지역 어려운 이웃 34세대에 이불·요·베개세트를 전달하고 있다.

제4기 인권증진시민위 출범
위원 20명 위촉…임기 2년
인권정책 자문·심의 역할

광주시는 26일 오전 시청 1층 행복회의실에서 시민의 인권증진과 인권 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제4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를 출범했다.

이날 행사는 위원 위촉장 수여, 위원장 선출 및 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제3기 위원회 활동보고 순으로 진행됐다.

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소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를 통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시와 위원회 간 인권현안 상시 공유·협의, 인권 현장활동 강화, 2019년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협의회 의장도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및 전국지자체 위원회와 연대 협력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제4기 위원회는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해 시의회와 인권단체,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그동안 지역에서 장애인, 청소년, 여성, 평화 등 각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온 활동가 20명을 시민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장으로는 안진 전남대 법대 교수가 선출됐다.

인권증진시민위원회는 ▲인권도시 육성 및 인권증진 기본계획 수립 ▲인권영향평가 ▲인권증진을 위한 시책추진 등 시민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인권정책 자문·심의 역할을 한다. 임기는 2년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은"선하고 가슴 따뜻한 사람들이 강해지는 광주,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우대받는 광주, 소외와 차별이 없는 행복한 광주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26일 오전 출범한 제4기 '인권증진시민위원회'의 위원들이 위촉식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유럽 시장 개척단 159만 달러 수출협약

폴란드·벨기에·스웨덴 3개국서 1685만 달러 수출상담

광주시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유럽연합 국가인 폴란드, 벨기에, 스웨덴 등 3개국에 시장개척단을 파견해 수출상담 1685만 달러, 수출 MOU 159만 달러의 성과를 올렸다.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은 지역 수출 유망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해 현지 바이어들에게 자사제품의 우수성과 효용성, 가격 경쟁력 등을 설명하는 자리로, 지역 제품이 유럽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광케이블 커넥터를 제작하는 고려오트론(주)는 현재 유럽지역 대부분에 깔려있는 구리선을 광케이블로 전환하는 정부 주도형 초고속 통신망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광케이블망 사업이 발전가능성이 높은 시장으로 파악돼 이번 해외시장개척단을 계기로 유럽시장을 집중 공략할 계획이다.

자동차 애프터마켓협회를 대표해 나온대경에이티(주)는 유럽 최대 규모의 자동차 부품 판매 업체인 POLCAR사와 심층 상담을 통해 50만 달러 수출 MOU를 체결하고, 바이어를 광주로 초청해 공장 견학을 추진할 계획이다.

AED(심장자동제세동기)를 생산하는 나눔테크(주)는 그동안 꾸준히 1년 이상 연락을 주고받은 바이어를 개별 방문해 20여 대를 샘플로 주문받았다. 추후 시장성이 좋으면 내년 1월안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유럽 시장에 첫 도전장을 내민 청년 창업 기업인 에어워터코리아와 파디엠(주)은 선진국 시장에 맞도록 현대 개발 제품의 적합성을 테스트하는 기회로 삼았다. 발란스 골프공과 타격기를 생산하는 엑스페론골프(주) 배판수 이사는 "이번 시장개척단 참여가 유럽 내 아마추어 골프협회 등에 제품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해외시장개척단 활동은 중소 명품강소기업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아닌, 수출 초보기업과 청년 스타트업 기업에도 해외 수출의 첫 걸음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광주시와 현지 코트라가 협력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지역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산구 "입주 앞둔 아파트 점검해 드립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광주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안전광산 프로젝트'로 입주를 앞둔 새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운영한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은 건축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는 입주민을 대신해 아파트 사용검사 전에 단지 내 안전, 공용공간의 시공 상태 등 하자를 살피고, 시정 또는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따라 26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도산2차 우방아이유쉘 아파트 591세대를 첫 점검대상으로 선정,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집중적인 점검이 실시된다.

광산구는 이번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의 점검을 위해 시공·전기·토목 등 7개 분야 전문가로 품질검수단을 구성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입주민과 사업주체 간 발생할 수도 있는 지루한 분쟁과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다"며 "품질검수단 지적사항은 사용검사 전까지 시공자가 시정하도록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

남구 '한전공대 설립과 지역 균형발전' 포럼

광주 남구가 28일 오전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한전공대 설립과 지역 균형발전'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지역개발과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 및 대학교수, 지역 주민 등 300여명 가량이 참석한다.

이번 포럼은 유창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연구 교수의 '한전공대 설립과 관련한 남구의 역할과 과제' 주제 발제 후 본격적인 종합토론이 이뤄진다.

유창호 교수는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한전공대 입지와 관련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 내 명문대학 사례처럼 우수한 교육 및 주거 여건, 쾌적한 공원 등은 대학 입지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남구의 여건과 잠재력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은 조선대 명예교수인 조용준 전 광주도시공사 사장의 주재로 진행되며, 유창호 교수를 비롯해 이유희 광주도시공사 처장, 이봉수 현대도시계획연구소 소장, 서천석 호남대 교수, 박희율 남구의회 부의장 등 5명이 패널로 나설 예정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동구 혁신네트워크 회의…구정 아이디어 논의

광주시 동구는 "지난 26일 구청 3층 상황실에서 '혁신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혁신네트워크는 각 부서 7~9급 실무자를 중심으로 주민밀착형 생활과제를 발굴하고 행정혁신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임이다.

구종천 부구청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내가 구청장이라면?'을 주제로 다양한 구정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참가자들은 ▲쓰레기 종량제봉투 디자인개선을 통한 도시미관 제고 ▲덤프트럭·탑차 등 대형차로 인한 시야방해 방지를 위한 신호등 기둥 LED등 설치 ▲의재 허백련 관련 수묵화·디자인을 반영한 특화거리 조성 등의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김용희 기자 kimyh@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번지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전원주택 허가 취득
- 매매 – 상담후 결정
- 주인직매. 010-2680-9685